

營·衛의 淸濁에 對한 考察

禹太律*, 申攻圭*

I. 緒論

靈樞·營衛生會篇⁷⁾에 「其淸者爲營 濁者爲衛」라 하여 營衛의 淸濁에 對하여 論하였는데 普遍的으로 營을 陰氣로, 衛를 陽氣로 보았을 때 淸-陽-衛, 濁-陰-營 이라 할 수 있는 屬性에 反한다고 하여 諸家의 論點이 되어 왔으며, 現代에도 瞿等⁹⁾이 淸者爲衛 濁者爲營으로 內容을 바꾸어야 한다고 主張 하였다. 그러면 營衛淸濁의 意味는 무엇이며, 淸濁과 陰陽의 配屬關係는 어떻게 되는지를 諸家의 學說과 字義를 通해 살펴 보고, 淸濁과 寒熱의 關係 및 衛氣의 脈外 循行의 意味에 對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本論

1) 營衛淸濁에 對한 諸家의 學說

陰陽은 人體에 對한 韓醫學의 生理, 病理, 治

療에 있어 基礎 理論이며 크게는 宇宙를 陰陽으로 二分化할 수 있으며 營衛氣도 이로 나눌 수 있다. 陽은 積極的 象徴이요 陰은 消極的 象徴이며, 陽은 動을 意味하고 陰은 靜을 意味하는데 例로 陽은 熱-火-淸-衛-上 등으로 陰은 寒-水-濁-下 등으로 相反되게 말할 수 있다. 이를 基礎로 內經의 營衛淸濁說을 反駁한 諸家를 살펴보면 虞¹⁸⁾는 素問·陰陽應象大論⁶⁾에서 「淸陽出上竅 濁陰出下竅, 淸陽發腠理 濁陰走五臟, 淸陽實四肢 濁陰歸六腑」를 들어 營衛淸濁의 概念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고, 瞿⁹⁾는 「첫째, 陰陽의 屬性으로 볼때 衛는 陽 - 營은 陰이 되고, 淸은 陽, 濁은 陰이 되며, 營은 裏를 營養하고 衛는 表를 衛護하는데 表는 陽 - 裏는 陰이 되기에 淸衛·濁營이 된다. 둘째, 生化 方面에서는 營은 心에서 血로 化하여 營血이 함께 脈中을 行하며 肺에서는 淸氣中에 濁한 것으로 素問·經脈別論의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于脈'에 그 性質이 비슷하고, 衛는 肺에서 氣로 化하여 衛氣가 함께 脈外를 行함으로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生理學教室

淸中에 淸이 된다. 셋째, 機能面을 살펴 보면 營은 水穀의 精氣로 五臟六腑를 營養하며 衛는 水穀의 悍氣로 脈外를 行하며 熏膚, 充身, 澤毛 하는 作用을 한다. 또한 營은 精氣로 體重하고 稠濁한 質이어서 速度가 느리고 衛는 悍氣로 體輕하며 淸稀한 質이어서 速度가 빠르다. 넷째, 臨床面에서 衛陽不固는 表虛證으로 '溫陽以氣'하고 營陰不足의 裏虛證에는 '補之以味'하는데 '氣爲陽, 味爲陰'하기에 淸陽爲外하고 濁陰으로 營內한다」고 하여 內經의 營衛淸濁說이 잘못 되었다고 批判하였다.

內經의 主張을 옳다고 받아들인 諸家를 살펴 보면 唐¹⁰⁾은 「陰氣는 柔和하여 淸이 되고 陽氣는 剛悍하여 濁이 된다」고 하였고, 張¹⁶⁾, 四¹¹⁾, 紀¹¹⁾ 그리고 丁等¹⁸⁾은 「胃에서 出한 穀氣에서 淸者는 水穀의 精氣이고 濁者는 水穀의 悍氣로 淸은 陰에 屬하고 그 性이 精傳하여 血脈을 化生하고 經隧之中을 周行하여 營氣가 되고, 濁은 陽에 屬하고 그 性이 慄疾滑利하여 經絡을 順行하지 못하고 肌表로 直達하고 皮毛分肉之間을 充實하게 하여 衛氣가 된다」고 하여 淸濁을 營衛氣의 生成에서부터 順行部位와 作用을 包括해 區分하였으나, 本¹¹⁾은 「淸은 水穀의 精華이고 이 精華가 血液으로 變成한 것이며 濁은 이미 精華가 빠져나간 糟粕에서 生成된 것」이라고 淸濁을 說明하였다.

滑¹⁷⁾은 「用으로써 보면 營이 되는 淸氣는 濁中에 있는 淸이고 衛가되는 濁氣는 淸中에 있는 濁을 말하며 體로써 보면 淸의 用이 濁之體를 벗어나지 못하고 濁의 用이 淸之體를 떠나지 못하는 故로 體用 關係로써 淸氣는 營이 되고 濁氣는 衛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馬¹⁷⁾는

「上焦는 陽, 中焦의 上半은 陽-下半은 陰, 下焦는 陰, 그래서 中焦의 下半이 陰이 되는것은 上焦之氣에서 緣由하여 中焦로 下降하니 이 中焦之氣는 上焦之氣를 받아 下焦로 下降하여 營氣를 生하므로 營氣는 陰氣가 된다. 다시 말해서 上中二焦의 淸氣가 下降하여 營氣를 生하므로 淸氣를 營氣라 한다. 또, 下焦의 陰氣가 中焦의 上半을 따라 上焦로 上昇하여 衛氣를 生하므로 下焦의 濁氣가 衛氣를 生하는 것과 같으니 濁氣를 衛氣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張¹⁶⁾은 「營이 脈中을 行하고 衛氣는 脈外를 行함을 들어 淸者爲營 濁者爲衛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馬¹⁷⁾의 「下焦之氣升于中上, 上焦之氣降于中下」라는 說은 臆說이라고 하였다. 王¹⁴⁾은 「淸氣가 營이 되는 것은 離中之陰에서 一陰이 바로 營이 되므로 淸氣 中에서 營氣가 生한다고 하고 濁氣가 衛가 되는 것은 坎中之陽에서 一陽이 바로 衛氣이므로 濁氣에서 衛氣가 生한다」고 보았다.

林¹⁵⁾은 「穀에서 받은 것을 濁이라하고 氣를 받은 것을 淸이라고 하여 淸者는 肺로, 濁者는 胃로 가기 때문에 濁卽爲衛 淸卽爲營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尹³⁾은 「脂肪의 分解物質이 바로 血管으로 들어가지 않고 淋巴管을 통해서 血管으로 들어가니 …… 衛氣는 下焦에서 나오며, 濁하여 經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金²⁾은 「血液을 다른 體液보다 淸한것으로 볼 때 血液과 組織液및 淋巴液으로 體液을 나눌 수 있으나 血液과 淋巴液을 表現한 것이라 하여 體液의 分類와 經脈에 들어가는 것」으로 淸濁을 나누고 있다.

以上에서 諸家들의 營衛淸濁에 對한 여러 觀

點을 살펴보았는데 諸家들은 各其 여러 理論을 根據로 들어 營衛의 清濁을 說明하였다.

2) 清濁의 字義에 對한 考察

우리가 나무들이 있는 숲을 觀察할 때 크게 두가지 方法이 있는데 하나는 나무 各各을 살펴 全體를 헤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全體인 숲을 살펴 나무를 斟酌하는 方法이 있다.

前者의 方法은 清-濁의 意味와 쓰임에 關한 것이고, 後者의 것은 營衛生會篇 全體를 段階的으로 살펴 보는 것이라 하겠다.

于先 內經에 記錄된 清濁의 쓰임에 對하여 살펴 보면 크게 네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맑다는 意味와 흐리다는 意味로 나누어 지는데 이때는 清陰 濁陽이 된다. 例를 들면 韓⁵⁾은 「日是 熱하여 陽이고 月은 寒하여 陰이 되는데 月은 清이라 하고 日을 濁이라고 하는 것은 月은 水의 性과 같아서 그 性이 맑고 透明한데 反하여, 日은 火의 性으로 光明性은 가졌으나 透明性은 없다. 그리고 水는 鎮靜性이 있어 맑아지는데 反하여 火는 發動性이 있어 混亂하게 된다. 이런 點으로 月은 清이 되고, 日은 濁이 된다」고 하였다. 또 물과 水蒸氣를 比較해 보면, 물은 맑아 清이 되고 水蒸氣는 混濁하여 濁이 되는데 물은 水蒸氣 보다 陰의이고, 水蒸氣는 물보다 陽의이다. 以外 「清涕-濁涕」⁶⁾, 「諸陽皆濁--諸陰皆清」⁷⁾, 「清轉反淚, 水液渾濁, 皆屬於熱」⁶⁾에서도 알 수 있는데 以上에서 볼 때 얼음→물→水蒸氣처럼 運動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보다 熱해지고 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清-寒-陰이 되고 濁-熱-陽이 되는 것이다. 둘째, 「清者其氣滑, 濁者其氣澁」

⁷⁾, 「清陽爲天, 濁陰爲地」⁶⁾에서 보듯 가볍다는 意味와 무겁다는 意味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昇降의 意味도 함께 包含되어 있으며, 이때는 陽清, 陰濁이 된다. 셋째, 明暗을 나타내는 境遇로 「善診者 察色按脈 先別陰陽 審清濁而知部分」⁶⁾, 「明堂潤澤以清……沖濁而痺」²²⁾에서 처럼 觀察形色에서 部位의 맑고 어두움을 나타내었다. 넷째, 清을 冷한 概念으로 보아 「清厥意不樂」⁶⁾, 「腰足清也」⁶⁾, 「手足清…不惡清飲…惡清飲」⁷⁾이라 하였으며 濁을 「五臟之濁氣」⁶⁾처럼 老廢物의 概念으로 보기도 하였다.

3) 寒熱의 觀點으로 본 營衛의 生成 循環과 作用

다음으로 營衛生會篇을 全體的으로 살펴보자. 왜냐하면 內經 原文에서 黃帝의 물음에 岐伯 등이 答하는데 있어 그 前提와 順次가 있음을 默過할 수 없고 營衛의 生成 循環과 作用을 살펴 봄으로써 한 文句만을 獨立시켜 보았을 때의 弊端을 줄일 수 있고 本來의 意味를 알 수 있는 것이다. 「穀이 胃로 入하여 脾 肺로 傳하여 主면은 營衛의 氣가 水穀之氣로 부터 生成되어 肺로 모인다」⁷⁾하고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⁷⁾라고 한 것을 順次的 段階로 보았을 때 「其清者爲營 濁者爲衛」의 區分은 脈內外로 順行하기 以前의 狀態를 說明한 것이며 「營在脈中 衛在脈外」까지를 包含하는 意味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 보았을 때, 營衛의 生成에서 있어 飲食物中 宗氣는 胃上口에서 吸收되고, 水穀은 中焦部에서 蒸津液하여 精微한 것을 肺로 傳達하여 營

氣를 形成하고, 나머지 糟粕은 胃에서 泌하여 下焦에 남게 된다. 이 糟粕 中에서 濁氣는 二便이 되고 淸氣는 肺로 傳하여져서 宗氣의 氣化作用을 받아 衛氣가 된다. 이 過程을 寒熱의 概念 加味하여 段階의으로 살펴보자. 왜냐하면 營衛氣가 淸濁과 密接한 聯關이 있고 寒熱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消化管 周圍의 體腔을 上焦(胸)-中焦(上腹)-下焦(下腹)으로 便宜上 나누어 溫度를 살펴 보았을때, 上焦는 心肺가 있어 가장 高溫이며, 中焦는 脾肝이 있어 中溫, 下焦는 腎이 있어 低溫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赤外線體熱攝影機를 이용한 李⁵⁾, 許⁸⁾, 金²⁾의 體幹 平均 溫度 測定 結果와 一致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體外로부터 들어오는 飮食物은 口腔으로부터 相對的으로 低-中-高로 消化管을 거쳐 내려 올 수록 周圍의 熱을 받아 高溫이 된다. 이것을 宗氣, 營氣, 衛氣에 適用시켜 보면 가장 寒한 水穀이 口로 入하여 가장 高溫의 熱을 받아 宗氣를 形成시키며 2次로 熱을 어느정도 받은 水穀은 中焦에서 中溫의 熱을 받아 蒸津液 하면서 水穀之精微를 만들 수 있으며 3次로 水穀의 가장 高溫인 狀態와 周圍 低溫의 狀況下에서 水穀之悍氣를 生成하며 나머지 것은 二便으로 排出하게 된다. 이 過程의 例로 飮食物의 腐熟과 술의 製造 過程을 들 수 있는데, 飮食物의 腐熟 過程에서 보면 時間이 흐를 수록 溫度가 높아지고 濁한 氣와 惡臭가 生成되며, 술의 製造 過程에서도 처음 蒸溜된 것이 가장 淸하고 後에 남은 술찌꺼기는 香과 맛이 濁하고 性質이 悍한 것이다. 또 腹部가 冷해지면 泄瀉와 腹痛 등의 症狀를 隨伴하게 되는데 이는 低溫의 腹部가 冷氣에 傷했을 때

周圍의 溫度가 낮아져 糟粕의 吸收와 衛氣의 生成이 不良해지면서 나타나는 病理 現象인 것이다. 以上에서 보면 宗氣가 先出하고 營衛氣가 次例로 出하는데 寒熱로 살펴 보았을 때는 生成源에 있어 衛氣 > 營氣 > 宗氣의 順으로 熱하며 大氣의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熱氣는 上昇하고 寒氣는 下降하는 것 같이 처음 低溫의 水穀에서 發生한 宗氣 보다는 高溫에서 生成되는 衛氣가 보다 강한 上昇之力을 갖게 되기에 衛氣가 濁한 悍氣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注意 깊게 살펴 보아야 할 點은 衛氣가 上昇之力과 熱이 높음으로 해서 慄疾滑利한 性質을 內包하여 肺에 上傳 할 때와 全身으로 散布 順行할 때도 浮하게 됨으로써 脈內를 行하지 못하고 脈外를 行하게 되는 것이다. 靈樞·衛氣篇⁷⁾의 「其氣內于五臟 而外絡肢節 其浮氣之不循經者爲衛氣」가 그 根據가 된다. 衛氣의 順行에 있어서 脈內를 行하는 營氣와 달리 晝間에 陽分을 二十五週 行하고 夜間에 陰分을 二十五週 行하는 것은 보다 熱한 時間인 晝間에 衛氣가 體表部로 浮하여 陽分을 行하게 되고, 寒한 때인 夜間에 內臟으로 下降하여 陰分을 行하는 것이다. 이의 根據로 類經·營衛生會篇의 「衛氣者 猶天之有淸濁 地之有鬱蒸, 陰陽晝夜 隨時變者也. 衛氣屬陽 乃出於下焦 下者必昇 故其氣自下而上 亦猶 地氣上爲雲也.」를 들 수 있다. 또한, 內經⁷⁾에서 「老人之不夜眠」이란 老人이 少壯之人보다 寒體이기에 營衛氣가 寒하여 營衛氣가 衰少해지고 衛氣가 內伐하기에 晝不精하고 夜不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內經⁷⁾에 「外風에 傷했을 때 內開腠理되고 毛蒸理泄하여 衛氣走之하여 其道를 不得循

하면 皮膚가 성긴곳으로 標疾滑利한 衛氣가 見開而出하여 漏泄하게 된다」고 한 것과 같이 衛氣는 體表部位로 나아가려는 힘이 強하고 營氣는 行於脈內함에서 알 수 있듯이 衛氣에 相對的인 들어가려는 힘이 強한데, 나아가려는 힘과 들어가려는 힘은 寒熱로써 調和를 이루고 있으며, 만약 寒熱의 均衡이 깨어지면 營衛의 循環과 作用에 影響을 미쳐 疾病을 招來하게 된다.

이에 營·衛氣는 寒熱과 生理 病理의으로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며 人體를 營養·保衛하는데 脈內外로 巡行은 分離되나 活潑한 交流를 한다. 「營衛 相隨 …… 故曰 相隨, 非相隨行, 相隨和也。」¹²⁾에서와 같이 營衛氣가 서로 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和合과 調和를 이루며 生命을 維持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寒·熱은 營衛氣의 性質 즉 清濁의 決定과 生成, 循環 및 作用에 密接한 關係를 維持한다.

III. 結 論

內經의 營衛清濁論을 中心으로 清濁과 陰陽의 配屬 問題, 寒熱과의 關係, 및 衛氣 循行과의 關係를 諸家 學說을 檢討하여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清을 맑고 透明한 것으로, 濁을 이에 對가 되는 것이라 할 때, 清은 陰이 되고 濁은 陽에 屬한다.
2. 寒熱은 營衛氣의 性質 卽 清濁의 決定과 生成, 循環 및 作用에 密接한 關係를 維持

한다.

3. 營衛生會篇의 「其清者爲營, 濁者爲衛」의 意味는 營衛의 生成 段階로부터 肺에 上傳될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營衛의 全體의 性質을 表現한 것이 아니다.
4. 衛氣가 脈內를 行하지 못하는 理由는 上昇之力과 熱性이 높아 그 性質이 標疾滑利하며 浮性을 가지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 新版 臟腑生理學, 慶熙大 生理學教室, 1987, p.277.
2. 金正洙: 男子高校生 體幹前面의 赤外線 體熱 映像 類型分類에 關한
3. 尹吉榮 :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成輔社, 1983, p.52.
4. 李紀龍 : 男子 高校生 體幹 心下部의 赤外線 體熱映像類型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3
5. 韓圭性 : 易學原理講話, 東方文化社, 1991, p.52
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素問, 東洋醫學 研究院 出版部, 1985,
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靈樞, 東洋醫學 研究院 出版部, 1985,
8. 許俊 : 體幹 前面의 赤外線體熱映像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3
9. 瞿岳云 : 中醫理論辯, 湖南 科學 技術 出版

- 社, 1990. pp.60-62.
10. 唐宗海 : 中西匯通醫經精義, 千頃堂書局, pp.72-74.
 11. 本間祥白 : 難經之研究, 1965, p.213.
 12.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1991, p.210.
 13. 王冰 :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p.104.
 14. 李東垣 : 東垣十種醫書, 서울, 大成出版社, 1983, pp.266-267.
 15. 林佩琴 :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p.1.
 16. 張景岳 : 類經, 서울, 大成出版社, 1984 p.71, 192.
 17. 陳夢雷等篇 :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中國 1982, pp.1418-1419,
 18. 秦越人 : 難經集註,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53.